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6.9.3.(목) 10:30	배포	2026.9.3.(목)		
담당부서	중소금융검사1국 부동산PF평가관리반	책임자	국 장	박진호	(02-3145-7410)
		담당자	팀 장	박종호	(02-3145-7380)
	감독혁신국 금융산업감독팀	책임자	국 장	최정환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최범전	(02-3145-8001)

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의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밀착관리를 실시합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8.13 대책의 후속조치로 '26.9.3.(목)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「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」를 개최

☑ 8.13 대책* 주요내용 발췌·요약

* 「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」, '26.8.13. 금융위원회

- (부동산PF 보증·자금공급 확대)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공급 확대
- (부실사업장 정상화) 캠프 펀드, 신디케이트론, 금융업권 자체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며,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상화 계획을 점검

-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건설 동향을 살펴보고,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

- (일시·장소) '26.9.3.(목) 10:30,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
- (참석)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(주재), 중소금융 부원장보,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, 신한은행, 교보생명보험, 미래에셋증권, 한국투자저축은행, 롯데캐피탈, KB자산운용, 농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나이스신용평가 등
- (안건) ① 최근 주택건설 동향 [나이스신용평가]
②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및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 [금융감독원]

-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'27년내 착공·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등 325개(약 18만호)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*를 지정하고,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해 나갈 계획

* 총 25명 규모의 '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'을 운영

-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하고 국토부, 유관기관, 금융권 등과 적극 연계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
- 금융감독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금융권과 공유하고,
 - “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.”고 당부
 - NICE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은 “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”라고 언급
 -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 주요 관계자들은 밀착관리방안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“금융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발언

붙임 1. 주거용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

2. PF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및 범정부 협업 계획

붙임1

주거용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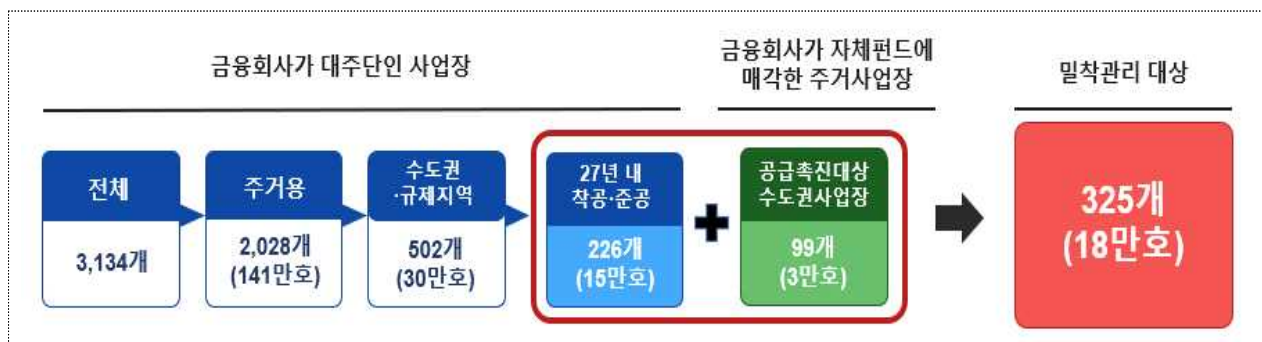
- (밀착관리 대상 사업장) 금융권이 대주단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(약 30만호)이며,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(약 3만호) 포함시 총 601개(약 33만호)

- 이 중 '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*(약 18만호)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

* 금융회사가 직접 대주단으로 참여 중이거나 금융업권 자체펀드가 보유한 사업장

- ☞ 최우선 관리대상(325개)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상시·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연요인 해소를 통해 신속공급이 가능한 사업장은 밀착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

[밀착관리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현황]



※ 밀착관리대상 사업장 수(325개)는 '26.8월말 현재 기준 잠정치이며, 향후 전수 조사 및 사업장 정보 업데이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관리체계) 밀착관리 대상 325개 사업장별로 ①담당자*를 지정하고, ②사업 지연요인 전수 확인을 거쳐 ③4개 관리유형으로 분류하여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연계

*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각 1인씩 총 2인

【참고 :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관리유형】

- ① (정상진행)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
- ② (공급촉진)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, 일시적 애로요인 해소시 정상진행
- ③ (정상화지원) 사업 부실화 징후가 있어, 금융지원 등 연계를 통한 정상화 필요
- ④ (매각유도) 매각 등을 통한 사업재개 유도 필요

-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업장(공급촉진·정상화지원)에 대해서는 지연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, 유관기관*, 금융권과 적극 연계

* (자금지원 필요) 신디케이트론, PF개발앵커리츠, 캠퍼드, (PF보증 수요) HUG, HF (공공임대 희망) LH, (인허가 등 비금융사항) 국조실·국토부 등 관계부처 인계 등

☞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더라도, 인허가·금융 지원 등을 통해 착공·준공 등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경우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

- 매각 이외의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적극 유도

[금융업권 주거사업장 밀착관리 체계]



- (관리조직) 금감원은 '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'을 구성하여 개별 PF사업장에 대해 밀착관리 실행
- PF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,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며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체제로 운영
- 금융회사도 사업장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사업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금감원에 즉시 보고

붙임2

PF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및 범정부 협업 계획

- 금감원은 PF 금융애로 사항의 접수·진행·처리결과 등을 총괄하는 「PF 금융애로 해소센터」를 운영 중('26.9.1.~)
 - 동 센터는 PF 대주단, 시행사 등 다양한 PF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*을 총괄하여 접수하고,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
 - * 개별 사업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 및 건전성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포함
- 또한 범정부(국조실 총괄) 「신속공급 추진 TF」를 비롯한 국토부, 금융위, 산업은행, LH 등 대외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감원의 역량을 총동원 할 계획

[PF 금융애로 해소센터 업무 프로세스]

